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심의 총평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1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1차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5월 20일(금요일) 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1

2021년 문체부로부터 이관 받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개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은 2006년 ‘아트인시티’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마을미술, 지난해의 예술뉴딜 사업으로 10여년에 걸친 경로를 거쳐 왔다. 그동안 주관 기관과 사업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이제 전문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되기를 바란다.

관계의 미술이자 과정의 미술인 공공미술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폭과 깊이를 추구하는 제안을 찾고자 했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공공미술이 단순히 예술가 지원과 같은 목적사업이 되거나, 지역의 환경미화와 장식미술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된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것을 계기로 공공미술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공공미술의 실무와 담론에서 경험을 가진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에는 총 10개의 사업이 신청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미화 수준의 작업을 넘어서서 지역의 현실에 밀착되고 다층적인 접근을 하는 작업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와 특성화된 접근, 주민과의 관계 맺기, 단계적인 과정의 미학, 공통적인 목표 실현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사업을 2차 현장실사, 3차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험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심의위원 일동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3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3차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6월 3일(금요일) 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2006년 ‘아트인시티’ 이후 정부 주도의 공공미술 사업이 10여 년의 성상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동안 사업 주체와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나름의 성과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을 계기로 공공미술 사업이 그동안의 성과에 기반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미술 사업의 관성화된 방식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공미술은 관계의 미술이자 과정의 미술이다. 이러한 공공미술의 취지와 본의에 충실한 작업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자발성, 사업 주체들의 역량, 뚜렷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 문제의 구체적 해결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최대한 가능성 높은 곳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2-3차 심의대상에 선정된 4개의 사업 중 1개의 사업은 최종 행정결격 처리가 되었다. 3개의 사업에 대한 PT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고 3개 사업을 조건부 선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안을 대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이 갖춰야 할 기본에 충실한 제안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한 조건들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된 바이다. 향후 심의위원이 사무처에 전달한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실행계획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예산 배분의 경우 2년 단위 사업에서 예산 편성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했지만 최대한 균형을 갖출 수 있기를 권유한다.

심의를 하면서 공공미술의 욕망이 점점 명소 만들기로 평준화되고 있음을 느꼈다. 아마 몇몇 성공 사례들의 학습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설사 공공미술의 목표가 최종적으로 지역 명소 만들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일뿐이다. 좋은 공공미술은 충분한 역량을 축적하면서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현실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들을 밟을 때 장기적인 목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미술이 관계의 미술인 이유는 지역 주민, 작가, 관의 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며,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들이 일정한 전망 하에서 유기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정의 미술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좋은 공공미술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공공적이며 무엇보다도 예술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심의위원 일동